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21일 화요일 음 6월 8일(조금)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20%
30%	성 산	30%
30%	고 산	30%
30%	서귀포	3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26/34℃
모레	구름많음	26/34℃

구름많음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27℃, 낮 최고기온은 30~34℃로 예상된다. 늦은 밤까지 중산간·산지 중심 곳에 따라 약한 비가 있겠으니 유의해야겠다.

	해뜸 05:39 해짐 19:42	달뜸 12:41 달짐 23:39
물때	만조 03:05 16:55	간조 10:13 22:29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미국, 전사자 확대에 9일 연속 공습

이란도 걸프국 공격 확대

미국이 미군 전사자 확대를 계기로 이란 상대 보복 공습의 규모를 키우면서 9일째 공격을 이어갔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9일(현지시간)부터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시작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상선과 민간 선원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군은 3시간 동안 이란의 군 지휘소와 해안 감시시설, 해상 전력, 미사일·드론 발사시설, 통신망 등을 타격했다.

이란은 쿠웨이트 내 미군 목표물과 요르단 아카바 공항의 미국 항공기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교전이 응징과 보복의 악순환으로 격화하면서 전면전 재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중동 지역 군용기 배치를 늘리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전투기도 이스라엘로 전진 배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공습에 초토화된 이란 도로. 연합뉴스

미국이 전쟁을 개시한 이후 공식 확인된 미군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다. 이란 당국은 최근 공습으로 최소 50명이 숨지고 51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중동 충돌 격화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도 급감했다. 미국은 외교적 해결책에 열려 있다면서도 양해각서의 유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가족에게 배운 경쟁

우 정 애
아들러심리치료연구소 대표

사람은 태어나면서 관계를 아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첫 번째 공동체에서 관계를 배운다. 부모와 형제자매를 통해 사랑받는 법, 갈등하는 법, 비교하는 법, 협력하는 법을 익히며 성장한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의 방식은 학교와 직장, 결혼생활을 거치며 강화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현재의 인간관계를 이해하려면 지금의 갈등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관계를 배운 가족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형제자매 갈등을 오랫동안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난다. "동생은 늘 나를 이기려고 했어요.", "언니는 항상 나를 무시했어요."라는 이야기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는 인간이 가족이라는 첫 번째 공동체에서 자신만의 생활양식(life-style)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생활양식이란 자신과 타인, 세상을 바라보며 관계를 맺는 삶의 기본 방식이다. 그는 출생순위 자체보다 가족 안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를 경험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았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자매라도 부모의 기대와 비교,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언니를 자주 칭찬했다고 하자. 부모에게는 자연스러운 칭찬이었지만 동생은 '언니가 기준'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언니를 이겨야 내가 인정받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존경과 경쟁을 동시에 배우게 된다.

반대로 언니는 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반복되는 경쟁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거리를 둘 수 있다. 그러면 동생은 '역시 언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경쟁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상담을 통해 어린 시절의 가족 경험을 함께 살펴보면 현재의 갈등이 가족 안에서 익힌 관계의 방식과 연결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들러는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중요한 것은 열등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이다. 누군가는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고, 누군가는 상대보다 앞서야 안심한다. 이러한 방식은 반복될수록 생활양식이 되어 성인이 된 이후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아들러는 생활양식이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삶의 출발점일 뿐, 인생의 결론은 아니다. 출생순위 역시 사람을 결정하는 운명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일 뿐이다.

가족은 우리가 처음 관계를 배우는 공동체이다. 그곳에서 경쟁을 배웠다면 이제는 협력을, 비교를 배웠다면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은 형제자매가 아니라 어린 시절 가족에게서 배운 관계의 방식이다.

열린마당

평화 선언 넘어 제도화로 '평화갈등영향평가'

현 치 훈
국제평화재단 팀장

평화는 갈등이 없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의 충돌을 폭력과 배제 없이 다룰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역량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 평화학자 요한 갈퉁도 평화를 폭력의 부재를 넘어 정의로운 관계와 제도가 작동하는 '적극적 평화'로 설명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강정항, 제2공항,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도민사회의 신뢰를 흔들고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개발과 안보의 필요가 인권과 공동체의 가치와 충돌할 때 이를 어떤 원칙과 절차로 조정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이에 제주만의 '평화갈등영향평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 사업의 구상 단계부터 도민의 안전과 인권, 공동체의 신뢰와 제주의 평화 정체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갈등영향분석에 평화·인권·공동체의 기준을 더해 고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기존 평가와 조사 내용을 되풀이하는 '옥상옥'이 아니라 각종 평가 결과를 연계·종합하는 전략적 사전검토 절차로 설계해야 한다.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전문기관이 조사와 분석을 지원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갈등이 발생한 뒤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 사전 숙의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투자다. 평화갈등영향평가는 선언으로서의 평화를 행정의 원칙과 절차로 구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종자서 시작되는 수급관리, 월동채소의 도전

강 창 훈
농업디지털센터 농업관측팀 주사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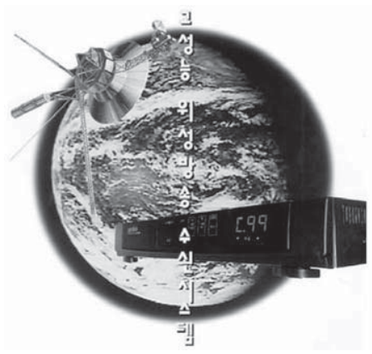
제주는 월동채소의 주산지이다. 월동무와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등은 제주 농업의 핵심 소득작목이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소비환경 변화로 생산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년도 가격 등락에 따라 반복되는 과잉재배로 수급불안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려면 생산 준비 단계부터 수급을 예측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월동채소의 수급관리는 종자 준비에서 시작된다. 종자 사전신청량은 농가의 재배 의향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9~10월 종자 유통량 조사는 실재배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여기에 생육 단계별 작황 관측을 연계하면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지난해 월동채소 수급 분석에서도 생산량과 소비 여건 변화에 따라 품목별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생산 초기부터 수급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생산예측만으로 모든 변수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종자에서부터 생산량을 예측하고 생육 과정을 관측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종자 유통량 조사와 작황관측은 제주 월동채소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기반이다. 종자에서 시작된 정보가 생산을 예측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힘이 될 때 제주 월동채소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가까워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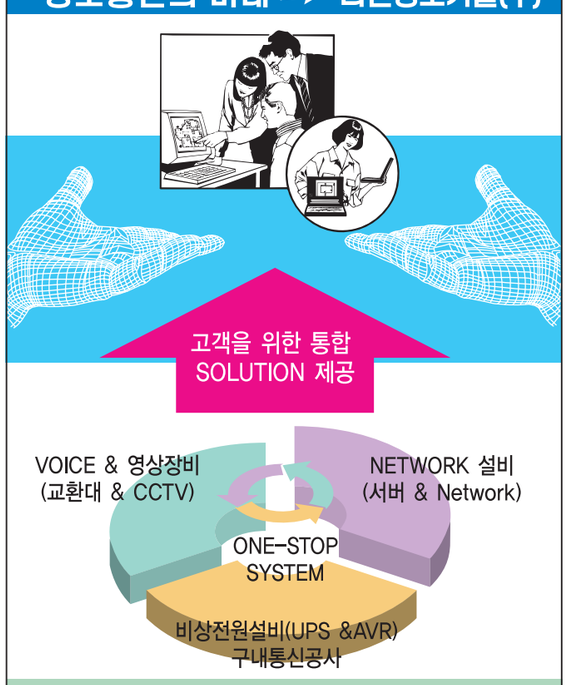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 라 전 설 (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감귤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 표 : 010-2691-1883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外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外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外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